

제 ① 교시

국 어

홀수형

수험번호 ()

성 명 ()

※ 다음 물음에 대한 가장 옳은 답을 하나만 골라, OMR 답안지에 정확히 표기하시오.

[1~4]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단어의 발음이 바르게 표기되지 않은 것은?

- ① 옷[을] ② 낮[난]
③ 밖[박] ④ 잎[입]

2. 다음 중 유의(類義) 관계인 것은?

- ① 공연 - 무용 ② 문학 - 수필
③ 음악 - 민요 ④ 이름 - 성명

3. 어법에 맞고 정확한 문장은?

- ① 애, 선생님이 빨리 오시래.
② 저에게 운동을 가르쳐 주세요.
③ 자두와 살구는 서로 틀린 과일입니다.
④ 어제 학교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4. 문장의 호응이 적절한 것은?

- ① 우리 나라가 반드시 우승할 것이다.
② 어제는 친구와 함께 도서관에 간다.
③ 나는 부모님을 데리고 고향에 다녀왔다.
④ 우리는 오늘 아침에 빵과 우유를 마셨다.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호민도 놀히언마르논*
난ㄴ티 들 리도 업스니이다.
아바님도 어이어신마르논*
위 덩더동성
어마님ㄴ티 피시리 업세라.
아소 님하
어마님ㄴ티 피시리 업세라.

- 「사모곡(思母曲)」 -

(나) 진주(晋州) 장터 생어물(魚物)전에는
바닷물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 울엄매야 울엄매,

별받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晋州) 남강(南江)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박재삼, 「추억에서」 -

* 놀히언마르논 : 날이지마는
* 어이어신마르논 : 어버이지마는

5.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는 3음보의 율격이다.
② (가), (나)의 공통되는 시적 대상은 어머니이다.
③ (가)는 조선시대에 창작된 고유의 정형시이다.
④ (나)의 시적 화자는 옹기를 굽는 장인이다.

6. (나)에 드러난 정서가 아닌 것은?

- ① 어머니의 노고를 안쓰러워함
②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
③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부끄러움
④ 늦게까지 고기를 파는 어머니의 고달픔

7. ㉠의 함축적 의미는?

- ① 아버지의 사랑 ② 어머니의 은혜
③ 형제간의 우애 ④ 친구 사이의 우정

8. ㉡, ㉢과 같은 표현 기법이 사용된 것은?

- ① 모란이 피기 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②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③ 발목을 벗고 물을 건너는 먼 마을
고향집 마당귀 바람은 잠을 자리.
④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봐라, 사령들아. 네의 원전(員前)에 여쭙어라. 먼 데 있는 걸인이 좋은 잔치에 당하였으니 주효(酒肴) 좀 얻어먹자고 여쭙어라.”

저 사령 거동 보소.

“어느 양반이관대, 우리 안전(案前)님 걸인 혼금(閹禁)하
니 그런 말은 내도 마오.”

등 밀쳐 내니 어찌 아니 명관(名官)인가. 운봉이 그 거동을 보고 본관에게 칭하는 말이

“저 결인의 의관은 남루하나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 말석에 앉히고 술잔이나 먹여 보냄이 어떠하뇨?”

본관 하는 말이

“운봉 소견대로 하오마는…….”

하니 ‘마는’ 소리 훗입맛이 사납겠다. 어사 속으로, ‘오냐,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라는 네가 저라.’

운봉이 분부하여

“저 양반 덥시래라.”

어사또 들어가 단좌(端坐)하여 좌우를 살펴보니, 당상(堂上)의 모든 수령 다담을 앞에 놓고 진양조 양양(洋洋)할 제 어사또 상을 보니 어찌 아니 통분하랴. 모 떨어진 개상판에 닥채저봄,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놓았구나. 상을 발길로 탁 차 던지며 운봉의 갈비를 직신,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다라도 잡수시오.”

하고 운봉이 하는 말이

“이러한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사오니 차운(次韻) 한 수씩 하여 보면 어떠하오?”

“그 말이 옳다.”

하니 윤봉이 윤(韻)을 낼 제, 높을 고(高)자, 기름 고(膏)자
두 자를 내어 놓고 차례로 윤을 달 제, 어사또 하는 말이

“결인도 어려서 추구권(抽句卷)이나 읽었더니, 좋은 잔치 당하여서 주효를 포식하고 그저 가기 무렵(無廉)하니 차운 한 수 하사이다.”

운봉이 반겨 들고 필연(筆硯)을 내어 주니 좌중(座中)이 다 못하여 글 두 귀[句]를 지었으되, 민정(民情)을 생각하고 본관의 정체(政體)를 생각하여 지었었다.

「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인혈(千人血)이요, 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라. 촛루낙시(燭淚落時) 민루낙(民淚落)이요, 가성고처(歌聲高處) 원성고(怨聲高)라.”

이 글 뜻은,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만 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았더라.”

- 「열녀 춘향 수절가(烈女春香守節歌)」 -

9. 위 글의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역순행적 구성이 드러난다.
- ② 구비 전승되어 작가를 알 수 없다.
- ③ 해학적인 표현과 풍자가 드러난다.
- ④ 호홉이 빠른 구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10. 위 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어사또는 사령의 융숭한 대접에 만족한다.
- ② 운봉은 본관을 도와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
- ③ 사령은 어사또의 출두를 짐작하고 안절부절못한다.
- ④ 본관은 어사또가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못마땅해 한다.

1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탐관오리의 횡포를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② 긴장감을 고조시켜 새로운 사건을 예고한다.
- ③ 양반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 ④ 백성을 걱정하는 어사또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武力)으로 정복(征服)하거나 경제력(經濟力)으로 지배(支配)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살고 인류 전체가 의좋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어느 민족도 일찍이 그러한 일을 한 이가 없으니 그것은 공상(空想)이라고 하지 마라. 일찍이 아무도 한 자가 없기에 우리가 하자는 것이다. 이 큰일은 하늘이 우리를 위하여 남겨 놓으신 것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 민족은 비로소 제 길을 찾고 제 일을 알아본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청년 남녀(靑年男女)가 모두 과거의 조그맣고 좁다란 생각을 버리고, 우리 민족의 큰 사명(使命)에 눈을 떠서, 제 마음을 닦고 제 힘을 기르기로 낙(樂)을 삼기를 바란다. 젊은 사람들이 모두 이 정신을 가지고 이 방향으로 힘을 쏟진댄 30년이 못하여 우리 민족은 ㉠ 관목상대(刮目相對) 하게 될 것을 나는 확신(確信)하는 바다.

- 김구, 「나의 소원」 -

12. 위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젊은이들은 편협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 ② 인류 전체가 즐겁고 의좋게 살기를 바란다.
- ③ 젊은이들은 제 마음을 닦고 제 힘을 길러야 한다.
- ④ 우리 민족이 인류 전체를 잘살게 하겠다는 것은 공상이다.

13. 위 글의 성격은?

- ① 설득적 ② 회고적
③ 묘사적 ④ 예찬적

14.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판단이 정확하고 예리함
- ② 상대방과 실력과 재주를 겨룸
- ③ 그 이전보다 놀랄 만큼 발전함
- ④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내다봄

[15~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간추리면 대강 그런 얘기였다. 아닌게아니라 그런 얘기는 곱단이와 만득이가 연애 걸던 시절을 아는 사람 아니면 도저히 먹혀들 것 같지 않은 이야기였다. 그러나 그 여자 레퍼토리는 그 몇 가지의 에피소드에 ㉠ 국한돼 있었다. 아직도 만득이가 곱단이 생각만 한다는 증거를 더는 대지 못했고, 나도 비슷한 얘기를 하도 여러 번 반복해 들으니깐 넌더리가 나면서 그 여자보다는 장만득 씨가 불쌍해질 무렵, 그 여자의 부음을 듣게 됐다. 장만득 씨가 상처를 한 것이다. 고혈압으로 몇 년째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돌연 쓰러진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흘 만에 숨을 거두었다고 했다. ㉡ 문상을 가서 그 여자의 영정 사진을 보고 섬뜩했다. 이십대 후반으로밖에 안 보이는 사진이었다. 요샌 영정 사진도 너무 늙은 건 보기 싫다고 아주 늙기 전에 찍어 놓는다고는 하지만, 칠순의 남편이 눈물을 떨구고 있는 앞에 이십대의 사진은 너무했다 싶었다. 자식들이 문상객들의 그런 눈치를 채고, 어머니는 평소에도 나 죽거든 늙어빠진 영정 쓰지 말라고 부탁하시더니, 돌아가신 후 보니까 손수 마련해 놓으신 영정 사진이 있더라고 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여자의 젊었을 적과 곱단이의 젊었을 적을 머릿속으로 비교하고 있었다. 댈 것도 아니었다. 내 상상 속에서 곱단이는 더욱 ㉢ 요요해지고, 그 여자는 젊다는 것 외엔 흔한 얼굴 그대로였다. 그리고 그제야 그 여자가 불쌍해졌다. 아아, 저 여자는 일생 얼마나 지독한 연적(戀敵)과 더 붙어 산 것일까. 생전 늙지도, 금도 가지 않는 연적이란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적이었을까.

그 여자가 죽고 나서 만득이를 따로 만날 일이 없을 리 없었다.

그를 우연히 만난 것은 그가 상처하고 나서도 이삼 년 후 엉뚱하게 정신대 할머니를 돕기 위한 모임에서였다. 뜻밖이었지만, 생전의 그의 아내로부터 귀에 못이 박이게 주입된 ㉣ 선입관이 있는지라 그가 그 모임에 나타난 것도 곱단이라고 연결지어서 생각되는 걸 어쩔 수가 없었다. 모임이 끝난 후 그가 보이지 않자 나는 마치 범인을 뒤쫓듯이 허겁지겁 행사장을 빠져 나와 저만치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걸어가는 그를 불러 세웠다. 그리고 다짜고짜 따지듯이 재취 장가를 들었느냐고 물었다. 그는 아니라고 말하고 나서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다고, 묻지도 않은 말까지 덧붙이는 것이었다.

왜요? 곱단이를 못 잊어서요? 여긴 왜 왔어요? 정신대에 그렇게 한이 맺혔어요? 고작 한 여자 때문에. 정신대만 아니었으면 둘이서 혼인했을 텐데 하구요? ㉤ 참 대단하십니다.

- 박완서, 「그 여자네 집」 -

1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나’는 사전에 ‘그’와 약속을 하고 만났다.
- ② ‘그’의 아내는 죽기 전에 남편을 용서했다.
- ③ ‘그’는 곱단이를 만나기 위해 모임에 참석했다.
- ④ ‘그’의 아내는 ‘그’가 곱단이를 잊지 못한다고 여겼다.

16. 위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등장 인물의 발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17. ㉠~㉤의 뜻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한: 일정한 부분으로 범위를 한정함
- ② 문상: 죽음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고 상주를 위문함
- ③ 요요: 몹시 마르고 수척하여 기운이 없음
- ④ 선입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점과 견해

18. ㉤과 같이 말한 이유는?

- ① 봉사활동에 앞장서는 모습에 감동해서
- ② 곱단이에게 집착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 ③ 전보다 건강하게 보이는 것이 다행스러워서
- ④ 암울한 현실을 담담히 견디는 모습이 대단해서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반 후 단장(短杖) 짚고 험난한 전정(前程)을 웃음경 삼아 탐승(探勝)의 길에 올랐을 때에는, 어느덧 구름과 안개가 개어져 원근 산악이 열병식하듯 점잖이들 버티고 서 있는데, 첫눈에 비치는 만산의 색소는 홍(紅)! 이른바 단풍이란 저런 것인가 보다 하였다.

만학천봉(萬壑千峯)이 한바탕 흐드러지게 웃는 듯, 산색(山色)은 붉을 대로 붉었다. 자세히 보니, 홍(紅)만도 아니었다. 청(靑)이 있고, 녹(綠)이 있고, 황(黃)이 있고, 등(橙)이 있고, 이를테면 산 전체가 무지개와 같이 복잡한 색소로 구성되었으면서, 얼른 보기에 주홍만으로 보이는 것은 스펙트럼의 조화단가!

복잡한 것은 빗갈만이 아니었다. 산의 용모는 더욱 다기(多岐)하다. 혹은 깎은 듯이 준초(峻峭)하고, 혹은 그린 듯이 온후(溫厚)하고, 혹은 막잡아 빛은 듯이 험상궂고, 혹은 틀에 박은 듯이 단정하고……, 용모, 풍취(風趣)가形形色색인 품이 이미 범속(凡俗)이 아니다.

산의 품평회를 연다면, 여기서 더 호화로울 수 있을까?
문자 그대로 무궁무진(無窮無盡)이다. 장안사 맞은편 산에
울울창창(鬱鬱蒼蒼) 우거진 것은 모두 잣나무뿐인데, 모두
㉠ 이등변삼각형으로 가지를 늘어뜨리고 섰는 품이,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가 흡사히 꺾어 놓은 ㉡ 차례탑(茶禮塔) 같다.
부처님은 예불상(禮佛床)만으로는 미흡해서, 이렇게 자연의
진수성찬을 베풀어 놓은 것일까?

- 정비석, 「산정 무한(山情無限)」-

19. 위와 같은 글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 ② 여정에 따라 여행지가 드러난다.
- ③ 인상적인 장면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 ④ 감상을 생략하고 속도감 있게 전개한다.

20. 위 글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대상을 의인화하고 있다.
- ② 열거를 통해 생동감을 주고 있다.
- ③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 ④ 설의적 표현이 참신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21. 위 글에 드러난 글쓴이의 심리로 적절한 것은?

- ① 초조함 ② 무심함
③ 경이로움 ④ 안타까움

22. ㉠, ㉡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대상은?

- ① 무지개 ② 장안사
③ 잣나무 ④ 예불상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나라에도 몇몇 도입종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예전엔 참개구리가 울던 연못에 요즘은 미국에서 건너온 황소개구리가 들어앉아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삼키고 있다. 어찌나 먹성이 좋은지 심지어는 우리 토종 개구리들을 먹고살던 뱀까지 잡아먹는다. 토종 물고기들 역시 미국에서 들어온 블루길한테 물길을 빼앗기고 있다. 이들이 어떻게 자기 나라보다 남의 나라에서 더 잘 살게 된 것일까?

도입종들이 모두 잘 적응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실, 절대다수는 낯선 땅에 발도 제대로 붙여 보지 못하고 사라진다. 정말 아주 가끔, 남의 땅에서 들풀에 붙은 불길처럼 무섭게 번져 나가는 것들이 있어 우리의 주목을 받을 뿐이다. 그렇게 남의 땅에서 의외의 성공을 거두는 종들은 대개 그 땅의 특정 서식지에 마땅히 버티고 있어야 할 종들이 쇠약해진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것들이다. 토종이 제자리를 당당히 지키고 있는 곳에 쉽사리 뿌리내릴 수 있는 외래종은 거의 없다.

<중략>

영어만 잘 하면 성공한다는 믿음에 온 나라가 야단법석이다. 한술 더 떠 일본을 따라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주장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영어는 배워서 나쁠 것 없고,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차원에서든 반드시 배워야 한다.

㉠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말이다. 우리말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영어를 들여오는 일은 우리 개구리들을 돌보지 않은 채 황소개구리를 들여온 우를 또다시 범하는 것이다.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일은 새 시대를 살아가는 필수 조건이다. ㉠ 우리말을 바로 세우는 일에도 소홀해서는 절대 안 된다. 황소개구리의 황소 울음 같은 소리에 익숙해져 참깨구리의 소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 최재천, 「황소개구리와 우리말」 -

23. 위 글의 중심 생각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우리말을 바로 세워야 한다.
- ② 국제 경쟁력과 언어는 별개의 문제이다.
- ③ 우리말을 세계의 공용어로 만들어야 한다.
- ④ 우리는 다른 나라의 언어 정책을 본받아야 한다.

24. ㉠에 사용된 내용 전개 방법은?

- ① 전문가의 주장을 빌어 쓰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③ 단어의 뜻을 풀이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④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고 있다.

25.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접속어는?

- ① 그리고 ② 하지만
③ 그래서 ④ 게다가

※ 확인사항

자신의 문제지 문형(홀수형)이 정확한가?

답을 OMR 카드의 해당란에 정확히 표기하였는가?